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      |                   |      |                  |
|------|-------------------|------|------------------|
| 이름   |                   | 학번   |                  |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Sault Ste. Marie |
| 파견대학 | Algoma University | 기간   | 1 / 21 ~ 2 / 11  |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대학 위치는 공항에서 차를 타고 20분 정도였고, 다운타운과는 버스 타고 10분 정도 거리였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시설은 전체적으로 모두 괜찮았다. 그리고 엄청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거는 경우가 많았다.                                                                                                                                                                |
| 수업       | 수업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회화 수업과 비슷하지만, 각자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첫 날에 반을 나누는 시험을 보고 그 결과로 A반과 I반으로 나뉘어서 수업을 했다. 모든 수업을 나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업은 반을 나뉘어서 하고 다른 수업은 다 같이 들었다. 수업을 진행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다 좋은 분들이었다. 과제는 다음 수업까지 해오는 식으로 내주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과제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다. 수업 준비를 딱히 할 일은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의 생각을 중요시하고 이야기하는 수업이라 정말 좋았다. |
| Activity | 수업 외에 Activity는 각자 하는 경우인데, 홈스테이 가족들과 하거나 같이 간 친구들과 모여서 할 수 있다. 나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썰매를 탔고 홈스테이 집에서 빌렸기 때문에 준비물이나 추가비용은 없었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타러 갈 수도 있는데 스케이트화는 홈스테이 집에 없으면 학교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괜찮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무료라 비용도 들지 않았다. 수업으로 포함된 Activity로는 Skiing, Sleigh Ride, Dog sledding, Alpaca 농장 체험, Snowshoeing, Hockey Game 관람 등이 있었다.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한국도 엄청 추웠던 때라 그렇게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하지만 체감온도는 그렇지 않다.                                                                                                                                                                                                            |
| 안전 | 시골이라 그런지 위험을 느껴본 적은 없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시간까지는 돌아다녀도 괜찮은 것 같다. 평일에는 11시까지 버스가 있다. 밤 9시 경에 봉사활동이 끝나고 20분 정도 걸어서 집으로 갔는데 아무런 일 없이 안전했다.                                                                                                                                                        |
| 숙소 |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O ) 외부 숙소( ) 기타( )<br>내가 살던 홈스테이 집은 샤워나 세탁 횟수에 대한 규칙이 없어서 편하게 생활했다. 화장실도 내 방에 있었는데 혼자 사용했기 때문에 편했다. 방도 따뜻했고 자취방보다 넓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샤워 시간에 제약이 있거나 방이 엄청 추운 집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다. 내 숙소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
| 식사 | 학교식당( ) 홈스테이( O ) 외부식당( ) 기타( )<br>점심을 홈스테이에서 싸주기 때문에 자신이 원해서 사먹지 않는 이상 매일 홈스테이에서 주는 식사를 한다. 주로 파스타, 피자, 샌드위치 등을 싸주는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주일정도 지나면 익숙해져서 먹을 만 했다. 레스토랑도 잘 찾아서 괜찮은 메뉴를 먹어야 맛있고 그렇지 않으면 먹기 힘들었다. 학교 식당도 한 번은 먹을 만하다. 가격이 싼 편도 아닌데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가격이 싸고 맛있는 감자튀김이나 푸틴만 많이 사먹었다. |
| 교통 | 나는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집이 학교 바로 뒤라 걸어서 5분이면 학교에 도착했다. 그리고 시내는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정도면 도착했다. 첫 날에 버스 노선과 시간이 적힌 버스를 알려주고 버스 타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학교는 나만 걸어서 다녔고 모두 10분 이상 버스를 타고 다녔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eTA,<br>여행자보험 | 1,961,000                    | 출국 전 사전 납부                    |
| 환전                 | 600,000                      | 캐나다 달러로 환전                    |
| 카드                 | 약 300,000                    | 레스토랑, 아이스 와인, 토론토<br>공항 면세점 등 |
|                    |                              |                               |
|                    |                              |                               |
|                    |                              |                               |
|                    |                              |                               |
| 합계                 | 2,861,000<br>( 약 3,000,000 )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생각보다 먹는 것이 힘들다. 밥을 먹어도 날아다니는 밥이기 때문에 아주 다르다. 나는 봉지라면을 챙겨 갔는데 봉지라면도 좋지만 햇반, 통조림, 컵라면 등을 챙겨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모든 홈스테이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라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거나 미혼 여성 혼자 사시는 집이 될 수도 있다. 홈스테이를 매칭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것을 기반으로 그쪽 대학에서 홈스테이 가족을 매칭해주고 홈스테이 가족들이 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중요하다. 캐나다로 출국하기 3~4일 전에 홈스테이 가족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가져가야 할 것이나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었다. 또, 학교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업만 하는 날도 있다. 여행이 목적인 사람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나는 홈스테이 가족을 아주 잘 만난 것 같다. 홈스테이 가족들 덕분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자기도 하고, 가족 모임에 참석해 많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했었다. 처음 일주일만 힘들었지만 일주일만 지나고 적응이 되어서 아주 편하고 재미있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보통 9시~10시에 모두 잠들고 6시~7시에 일어나는데 과제가 많이 있지 않아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아주 익숙해졌을 때 돌아온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

다. 3주는 너무 짧은 것 같다. 무엇보다 누구에나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문화가 마음에 들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걸어서 집으로 갈 때 등 마주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처음에는 너무 시골이라 별로라고 느껴졌지만 시골이라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있을만한 것은 다 있었던 것 같다. 홈스테이 가족과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면 미국을 갈 수 있는데 그 곳도 시골이었다.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많아서 하나를 정해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활동들이 좋았다. 많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추천하고 싶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Hockey Game



맑은 날 Algoma Univesity



Sleigh Ride  
( 뒤에 타 숲 속을 달렸다. )



Snowshoeing  
( 눈 속에 발이 빠지지 않고, 눈 위를 걸었다. )



졸업식 날 가족들과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다 같이 수업의 일종으로 Porcupine Quill Bracelets을 만들었다.